

- **2026 년 8 월 속회**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온 세상 위하여 (새 505 장/통 268 장)
3. **시작하는 기도:** 속원 중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하나님께, 가족과 속원들에게 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5. **성경읽기: 마가복음 9:38 - 41**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6. **본문의 내용**

앞선 본문에서 "누가 크냐"로 다투며 서열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의 배타적인 태도가 이번에는 외부인을 향한 배척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못하게 막았다"고 보고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롭게 된 사실보다, 그가 '우리 교단, 우리 파벌, 우리 편'에 속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독점하려는 영적 교만과 파벌주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지 말아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곧바로 예수님을 비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말씀하며 하나님 나라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원어적으로 '주의 이름으로'는 단순히 주문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인격에 연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제자 그룹에 속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사역하고 있었던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물 한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소박하지만 필수적인 환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업적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선행과 배려를 통해 확장되며,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 7. 나눔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선한 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배타적이고 편가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할 때,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우리 교회, 우리 속회, 나와 친한 사람'만 챙기며 다른 이들을 소외시키거나 은근히 선을 그었던 적은 없었나요? 반대로, 내 주변의 누군가(가족, 이웃, 동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물 한잔'과 같은 작지만 구체적인 친절이나 환대를 해 본 경험이 있나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삶의 자리(가정, 일터, 교회 등)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절, 환대'를 편가름이나 차별 없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한 가지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8. 합심기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속장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 9. 주기도문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속회 모임을 마무리합니다.